

기획

강의계획서 게시율, 다시 '하락세'…“제도 마련 시급”

안수민 기자 ansu95123@knu.ac.kr

지난 학기 개선됐던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이번 학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의계획서에는 수업의 개요와 목표, 수업방법과 주차별 강의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다. 이에 강의계획서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어떤 수업을 들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해 1학기, 절반 이하에 달했던 강의계획서 게시율에 수강희망과 목표(희과담)를 앞뒀던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문제점을 인식한 대학본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역시도 아쉬움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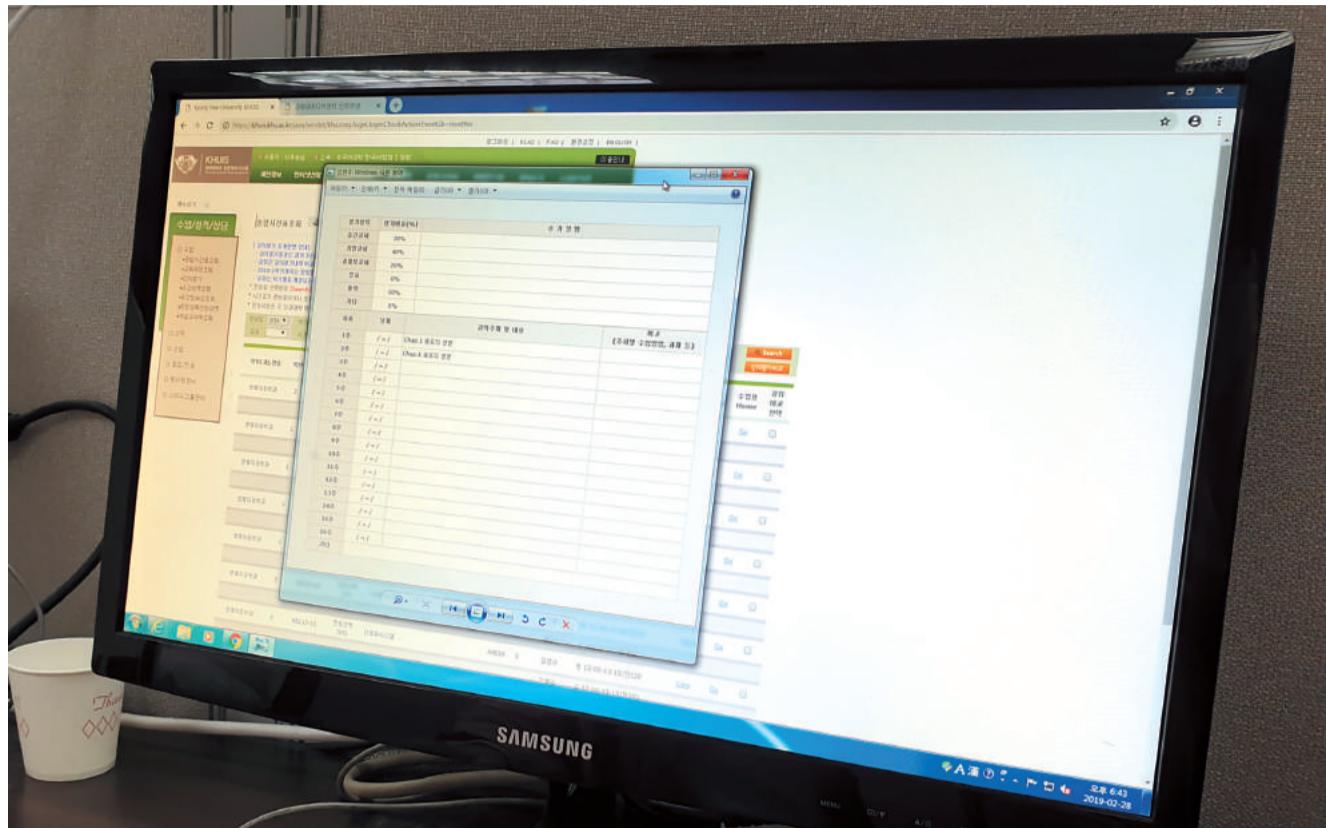
지난해 1학기, 우리신문은 강의계획서 게시율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교수님, 강의계획서는 언제쯤…? / 대학주보 제1630호, 2018.3.5.). 당시 학생들은 “강의계획서가 작성돼있지 않으면 해당 수업을 듣지 않는다”, “강의명으로만 수업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1차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캠퍼스 별 강의계획서 게시율을 비교하면 서울캠퍼스(서울캠) 50%, 국제캠퍼스(국제캠) 45%를 보였다. 총 24개 단과대학 중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절반도 안 되는 단과대학도 12곳에 달했다. 약학대학과 체육대학의 게시율은 4%로 가장 낮았으며 예술디자인대학(22%), 외국어대학(27%), 공과대학(30%)이 그 뒤를 이었다. 게시율 90% 이상을 기록한 곳은 의과대학(95%)뿐이었다.

게시율이 낮은 단과대학 행정실은 “논문 작성, 실험, 연구과제 등으로 교수님들께서 많이 바쁘시다”, “교수님들께 입력 기간을 안내할 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재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기존 강의계획서 게시 제도는 관리 주체인 학사지원과가 매년 1차 희과담 기간 전 각 단과대학에 강의계획서 게시를 안내하고, 각 단과대학이 개별 교수에게 지시하면 교수수가 게시하는 구조였다. 잇따른 지역에 학사지원과는 부총장 차원의 강의계획서 입력마감 독려, 미발령 강사에게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 1차 희과담 시행 전 강의계획서 입력마감 요청 공문 발송 등 강의계획서 게시율 상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의 성과로 2018학년도 2학기에는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급증했다. 학사지원과



희망 과목 담기 하루 전에도 몇몇 강의 계획서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
강의계획서 작성
교수 업적 평가 반영도
고려해야
연세대는 계획서
미등재시 학점 수의
2배 감점

”

에 따르면 2018학년도 2학기 1차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약 89%였다. 게시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단과대학은 자율전공학과(38%) 한 군데만 존재했으며, 총 24개 단과대학 중 14곳의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90% 이상에 달했다. 특히 치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은 게시율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한 학기만인 2019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희과담은 이례적으로 1월 15일에 한 차례만 이뤄졌다.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다른 때보다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더 높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결과는 다소 저조했던 셈이다.

희과담 시작 하루 전날인 1월 14일,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서울캠, 국제캠 모두 약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 캠퍼스 후마니티스칼리지(후마)의 게시율은 70% 초반대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호텔관광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등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 아쉬움을 보였다. 가장 게시가 미진했던 자율전공학과는 38%의 게시율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학사지원과는 감소세 돌입의 이유로 후마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강좌 확정 지연, 단과대학의

교·강사 미정 강좌 증가 등을 들었다.

특히 후마가 개편되며 올해 새로 생긴 과목이 문제였다. 희과담 기준 서울캠에 개설된 세계와시민 55개 강의 중 강의계획서가 탑재된 강의는 단 하나였다. 성찰과 표현은 강의계획서가 게재된 강의가 없었다. 국제캠 성찰과 표현은 51개 강의 중 5개 강의만 강의계획서가 게시됐다. 후마 행정실은 “교재를 새로 만들고 과목 코드를 짜는 과정을 일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강의 자체가 늦게 개설됐다”고 말했다. 급박한 일정으로 늦어진 행정상 절차가 게시율 평균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번 하락세는 강사법 시행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경민 과장은 “대학은 학년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3월 초까지 연간 강의 계획이 모두 정해져야 한다”며 “2학기가 시작되는 8월에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시행되므로 이번 겨울철 강사 채용이 다른 때보다 신중해야 했고, 늦어진 채용 기간만큼 강의계획서 게시가 지체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초 교무과는 지난달 8일까지 시간강사 발령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지만, 채용을 담당하는 각 단과대학은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에게 주어진 일정이 너무 족박하다

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시간강사의 공식 발령 시기는 3월이며 이전까지는 수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없으므로 시간강사 수업의 희과담 전 게시율은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이전에 발령을 미리하는 ‘예약발령제’가 존재하지만, 큰 효용성은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통상 2월에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발령하지만 강좌개설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한다”며 “강좌개설 이전에 담당교수를 임용하고 배정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옳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향후 교무과 및 단과대학과 지속적으로 상의를 통해 개선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강의계획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이 끝난 후 뒤늦게 계획서를 올리는 교수를 제재할 제도적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게시는 오직 담당교수의 ‘의지’에만 달려있으며 학사지원과와 각 단과대학은 ‘안내’만을 할 뿐이다.

반면 연세대는 강의계획서 작성 여부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계획서를 게시하기 위해 연세대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45조 제2항의 내용을 지난 2007년에 신설했다. 내용은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 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이다. 이외에도 건국대, 서강대, 인하대 등도 교수업적평가에 강의계획서 게시 여부를 반영하여 교수의 강의계획서 게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학생들은 ‘성의 없는’ 강의계획서 방지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 강의 계획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윤선(물리학 2014) 씨는 “빈 강의계획서를 보며 오로지 과목명이나 강의 평만 갖고 해당 수업을 유추하는데 이는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다반사다”라며 “수업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수업은 웬만하면 들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적어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교·강사 분들께서 강의계획서 게시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등록기간 : 2019.2.18.(월) ~ 2019.3.8.(금) 16:00까지
- 추가 등록기간 : 2019.3.11.(월) ~ 2019.3.15.(금) 16:00까지
- * 인원수 미달로 폐강된 강좌는 추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강의기간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9. 3. 11(월)~2019. 4. 19(금)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30~19:50(월, 수, 목)	
	시간	레벨	Beginning / Low Intermediate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00~20:00(화)	
	시간	Ted Talk	News Talk	Easy Book Club
	수강료	15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시간	초급1/초급2/중급1/중급2/고급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중급1	중급2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시간	초급1/초급2/초급3/중급1/중급2/고급2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중급3	중급1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19:30(화, 목)	오후반 18:00~19:30(월, 수)	오후반 19:30~21:00(월)
	시간	초급1	초급2	Movie Speaking
	수강료	120,000원		9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화, 목)	150,000원	
	시간	중급1	중급2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9:00(화, 목)	150,000원	오후반 17:30~19:00(월, 수)
	시간	중급1	중급2	
CONTENT-BASED LECTURES	시간	10:30~12:00(월)	10:30~12:00(수)	10:30~12:00(금)
	시간	50,000원(경희대 학생 무료)	Business Presentation & Interview (중, 고급)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for Beginners (초, 중급)
	시간	12:00~13:30(월)	16:30~18:00(월)	12:00~13:30(수)
	시간	Talk Like TED (중, 고급)	Harry Potter Book Club (중, 고급)	English Writing for Absolute Beginners (초, 중급)
	수강료	50,000원(경희대 학생 무료)		Critical Discussions on Current Issues (중, 고급)

Level Test

- 영어 : 2019.3.6.(수), 3.7.(목) 17:30
- 중국어 : 2019.3.6.(수) 17:30
- 일본어 : 2019.3.7.(목) 17:30
- 테스트 후 반 배정 : 2019.3.8.(금) 오후 8시 이후 www.iie.ac.kr에서 확인

Sample Class 영어 : 2019.3.6.(수) 17:15 ※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2019 경희 누리벗



외국인 친구를 만나자!





모집 대상

외국인 초기 소수 고급학년,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접수 방법

인터넷烨록 홈페이지(<http://leeku.ac.kr>)를 통해 신청서 및 자료(소개서)를 제작, 제출 받음

신청 기간(개별 진행)

• 2019. 02. 19(월) ~ 2019. 03. 08(금)
• 기관 개별 접수

활동 내용

• 주 1회 외국인 학생과 1:1 만남 및 활동 및 저작 작품
• 본교 교육원 졸업, 학과 학사 등 각종 행사 참여

활동 기간(개별 진행)

• 2019. 03. 16(화) ~ 2019. 08. 02(금)
• 기관 개별 접수

혜택

• 고등학교 1365자원봉사인증, 본교 재학생(사회봉사 1회)

• 경희 누리벗 활동 인증서 수여

• 우수 누리벗 선정(단기교육원 편성 명의 상장 및 기념증정, 연이유학원 졸업증 등 수여)

• 모든 참가자에게 경희 누리벗 기념증정

• 본교 누리벗 홈페이지(<http://leeku.ac.kr>)

• 문의: nurub@knu.ac.kr

• 문의: www.knu.ac.kr